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주동식 프란치스코와 최옥진 베로니카 부부를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2026년 사순특강 & 집중 판공성사(3월 15일)

시간/장소	담당
사순 특강 11:00-12:30 (산다미아노 홀)	김동권(사무엘) 신부 (뉴튼수도원 원장)
점심(김밥) 12:30PM - 1:00PM	
고해 성사 1:00PM-3:00PM (소성당 고해소)	김찬미(가비노) 신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미주지사 /서울대교구)
	김영민(미카엘) 신부 (마운틴사이드 메디컬센터 원목)

* 판공성사표와 성사표 제출함이 코리안오피스 데스크에 마련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내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됩니다. 성사 보신 분들은 성사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2/22(일)	울뜨레아	각 단체마다 봉사자 4명 : 십자가 1 주송1, 초2
3/1(일)	요셉회, 성모회	
3/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3/15(일)	청년회	
3/22(일)	사목회	
3/29(일)	꾸리아	

부활 꽃 봉헌

부활절에 본당에서 사용할 꽃 봉헌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년 '영성의 해' 상반기 영성특강

3/15(주일) 특강	Fr. 김동권 사무엘 (뉴튼 수도원 원장)
5/17(주일) 특강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2026년 봄학기 청년성서모임 오리엔테이션

일시: 3/8(주일) 12:00 PM, 산 다미아노홀

문의: 714-809-9874

(대표봉사자 유선욱 베로니카, 카카오톡 ID: sunwouk)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일시: 3/17(화) 6:00PM, 산 다미아노홀

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2026년 뉴욕대교구 세나투스 아치에스행사

일시: 3/28(토) 1:00PM

장소: 대성전

문의: 347-633-3767(꾸리아단장 윤 루시아)

+ 전쟁의 시급한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정과 평화는 상호 위협이나 파괴와 고통,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에 직면하여, 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기 전에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도덕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 레오 14세, 3월 1일 삼중기도 연설 중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종교 프란치스코(1754-1801)



김종교 프란치스코는, 1754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데다가 호감이 가지 않는 외양이었지만, 공부를 매우 좋아했다. 이벽 요한 세례자는 이러한 그를 매우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놀라운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다.

1794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프란치스코'라는 세례

명을 받은 후 을묘박해로 체포되었지만 마음이 약해져 석방된다. 그러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간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포도청으로 압송된 김 프란치스코는 다시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였지만 형조로 이송된 후에는 갖가지 혹형을 당하고도 다음과 같이 굳건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저는 예전에 배교하고 석방된 후,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찾아가 세례명을 받고는 '천주교 신앙이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형벌과 문초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이러한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만 번 죽는 다 하더라도 이를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1801년 10월 4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2, 가해, 2026. 03. 08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말씀을 알아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최정훈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한 아이가 머뭇거리며 손을 들지 못하고 있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네, 가고는 싶은데... 엄마가 주일학교 끝나면 집에 바로 오라고 하셨어요.” 웃음을 주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말은 듣지만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영똥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은총(4,14 참조)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고, 육체적 생명을 유지해 주는, 문자그대로의 ‘물’로 알아들었습니다.(4,11-12,15 참조)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채 영똥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나를 믿고 내말을 따르면 행복하게 될 거야.” “네. 당신을 믿고 따르겠으니 이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주님께서서는 사랑과 친교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 성공과 같은 덧없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이기심이 낡은 독점욕, 지배욕,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정의 위에 세워지는 평화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불의에 대한 침묵과 갈등의 은폐로 이룬 위선적 안정을 평화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 말씀을 건네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의 영적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4,15 참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첨예한 논쟁인 예배 문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4,19-20 참조)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몰이해 앞에서 불쾌해하지도 않으시고, 대화를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여, 다시 영과 진리에 대한 주제로 대화로 이끄셨습니다.(4,21-26 참조)

진리를 이해하는 데 더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에 의탁한다면,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로마 5,2 참조)



그림 애설



아침기도 |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을 지금의 내게로 불러와서, 저도 내 영혼이 알아먹을 때까지, 아니, 이성이 항복할 때까지 씨름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축일 샘물이든, 영혼의 갈증을 적실 진리의 말씀이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분열의 땅에는 생명의 물이 절실해 보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아 기도손을 모으면, 우리도 문득 당신의 샘물이 피워내는 꽃봉오리를 닮았다 싶습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